

## 신체 인식도 및 만족도에 따른 패션소재 선호도에 관한 연구

김증자\* · 조지현\*\*

\* 영진전문대학  
의상디자인과 교수

\*\* 영진전문대학  
의상디자인과 강사

### 목 차

#### I. 서론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참고문헌

#### Abstract

### I. 서론

패션은 자기 연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그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소재, 형태, 색채, 문양, 디테일 등이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소재의 선택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어패럴 설계, 제작에 1차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기성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요구 수준은 치수적합성 및 디자인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착용시의 쾌적감, 인체 실루엣과의 적합성 및 소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추구하고 있다. 특히 의류산업에 있어서 의복구매의 중요한 소비계층인 20대 여성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시장이 기성복의 비중이 매우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비자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 대량생산 체제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고려해야 하므로 소비자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더불어 생산성의 향상과 능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관심도가 높으며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정확한 신체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패션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

신체적 만족도란 개인이 신체의 부분, 기능 혹은 과정에 대하여 지니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심리적인 자아개념과 관련되는 것이다. 20대 여성의 체형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교적 다양성이 적게 나타나지만, 자신의 신체에 대한 심리적 인식도와 만족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전체 신체에 대한 느낌, 상체에 대한 느낌, 하체에 대한 느낌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며 개인차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 만족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Secord와 Jourard(1953)의 정의와 측정하는 도구개발 이후에 Richard와 Hawthorne(1971)은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전공, 학년에 따라 유의차가 있음을 밝혔다. 이영륜(1981)의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중년 전기, 중년 후기, 그리고 중년 신체 만족도와 의복만족도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김정숙(1984)은 여대생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디자인의 선호간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재은(1988)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종합적으로 신체적 만족이 높은 사람일수록 심리적 안정도가 높으며 자아존중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Douty와 Brannon(1984), Lennon(1988), Labat와 DeLong(1990), Kaiser(1990) 등은 마른 체형을 선호하며 남자보다 신체불만감이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김양진과 정혜원(1992)은 여고생의 신체 만족도 연구에서 신체 만족도는 다소 낮았고, 특히 하체부위에 불만족했음을 밝혔다. 류기주(1992)는 이상적으로 여기는 신체의 형태는 다르며 그 이상형에 따라서 의복의 형태가 다르다고 하였다. 박영숙 등(1994)은 대학생의 체형만족태도 및 비만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비만도와 자기 판단 체형을 비교했을 때 남학생은 자기판단 체형을 정상수준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실제 비만도에 비해 낮은 반면 여학생은 실제 비만도에 비해 자기 판단 체형이 정상 내지 과체중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은과 남윤자(1999)는 20대 여성의 신체 만족도와 이상형을 1992년과 1997년 실측 데이터를 중심으로 비교 고찰한 결과 1997년도 조사집단이 자신의 신체를 더 말랐다고 생각할 때 더 큰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패션 상품별 다양한 소재에 대한 선호도에 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히 기성복의 근년 패션 경향이 시스루 룩, 관제리 룩으로 바디 라인이 강조되는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기성복의 중요한 소비자 집단이며 신체 적합성에 매우 민감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신체 인식도와 신체 만족도를 파악하며 이들 상호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체에 대한 불만 집단과 만족 집단의 패션소재에 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집단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으로서, 연구대상은 평균연령 19세에서 23세에 이르는 대구지역의 대학생 500명을 1999년 6월에 설문지로 조사한 결과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43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7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정재은, 남윤자의 선행연구(1999)에서 사용된 문항 가운데에서 신뢰도와 타당성이 입증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즉 자신의 신체 각 항목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 40문, 전신(全身), 상체, 하체의 여림과 비만의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 3문을 5점 척도법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한 항목 중에서 둘레 항목은 “매우 가늘다”를 1점, “매우 굵다”를 5점, 길이 항목은 “매우 짧다”를 1점, “매우 길다”에 5점을 부여하였으며, 크기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작다”에 1점, “매우 크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체중에 관한 항목은 “매우 적다”에 1점, “매우 많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신체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에서는 “매우 불만이다”에 1점, “매우 만족한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캐주얼 웨어, 포멀 웨어, 언더웨어, 스포츠 웨어, 모자, 장갑 등의 액세서리류 소재에 대하여 패션 소재 12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5점 척도법을 사용하였다. 각 소재에 대하여 “매우 좋지 않다”는 1점, “매우 좋다”는 5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설문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알아보고자, 성별, 연령, 직업, 현재 거주지에 관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PC+를 이용하여 문항의 평균과 인식도 및 만족도 문항에 대한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분류된 집단에 대해서는 집단간의 피복소재 선호에 차이가 나는지를 ANOVA 분석한 후 유의차가 나타난 변인에 대해서는 Duncan multiple test를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 신체 각 부위에 대한 크기(size)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의 상관성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두 변인 상호간의 상관계수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는 평균 분포가 대부분이 2.5에서 3.5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나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만족도는 목둘레, 손목둘레, 발목둘레, 손크기, 발크기를 제외한 항목에서 3이하의 평균을 나타내어 현재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장, 체중, 대퇴둘레에 대하여 더욱 낮은 값을 나타내어 이 부분에서 매우 불만족을 표시하였다.

인식도와 만족도 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정적 상관을 나타낸 항목은 길이 항목으로 키가 클수록( $r=0.54$ ), 다리가 길수록( $r=0.53$ ), 팔이 길수록( $r=0.39$ ) 신체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길이 항목 중에서 등길이와 엉덩이 길이는 길수록 신체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슴둘레를 제외한 모든 둘레 항목에 대해서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대퇴둘레가 클수록( $r=-0.62$ ), 허리둘레가 클수록( $r=-0.60$ ), 하퇴둘레가 클수록( $r=-0.59$ ), 발목둘레가 클수록( $r=-0.55$ ), 상완둘레가 클

수룩( $r=-0.53$ ) 불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머리카기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 역시 부적 상관으로 상관계수  $-0.58$ 을 나타내었으며 체중은 많을수록( $r=-0.44$ )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No.	신체 부위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 계수	No.	신체 부위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 계수
		인식도	만족도				인식도	만족도	
1	신장	2.90 ±0.65	2.08 ±1.03	0.539**	11	하퇴 둘레	3.32 ±0.75	2.47 ±0.96	-0.585**
2	체중	3.45 ±0.68	2.07 ±0.94	-0.442**	12	발목 둘레	2.89 ±0.73	3.02 ±0.82	-0.546**
3	가슴 둘레	2.88 ±0.79	2.57 ±0.95	0.091	13	등 길이	3.09 ±0.51	2.98 ±0.73	-0.373**
4	허리 둘레	3.06 ±0.73	2.67 ±0.92	-0.601**	14	엉덩이 길이	3.04 ±0.35	2.92 ±0.69	-0.313**
5	엉덩이 둘레	3.31 ±0.71	2.55 ±0.84	-0.410**	15	어깨 너비	3.06 ±0.73	2.96 ±0.88	-0.518**
6	목 둘레	2.91 ±0.60	3.26 ±0.76	-0.477**	16	머리 크기	2.94 ±0.61	2.73 ±0.86	-0.580**
7	상완 둘레	3.46 ±0.75	2.48 ±0.95	-0.534**	17	손 크기	2.96 ±0.79	3.33 ±0.82	-0.061
8	전완 둘레	2.85 ±0.73	2.98 ±0.82	-0.462**	18	발 크기	2.98 ±0.72	3.34 ±0.78	-0.148**
9	손목 둘레	2.66 ±0.77	3.25 ±0.80	-0.327**	19	팔 길이	3.14 ±0.55	2.91 ±0.67	0.390**
10	대퇴 둘레	3.64 ±0.74	1.96 ±0.93	-0.618**	20	다리 길이	3.02 ±0.63	2.74 ±0.97	0.528**

이상적인 신체상(ideal body image)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시대적 배경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기준으로서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문화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신체대일 수록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기인하여 신체 각 부위의 인식, 만족도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표 2-1〉, 〈표 2-2〉는 신체 인식도와 신체 만족도의 상관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매우 낮은 결과가 나타난 나타난 가슴둘레와 손크기에 대한 항목을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이 두 가지 항목은 작은 경우, 큰 경우 모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가슴둘레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 간의 교차분석 결과

인식도 \ 만족도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계
매우 작다	7	6	4	1	0	18
작다	14	48	33	11	0	106
보통이다	5	48	94	82	1	230
크다	15	32	17	16	0	80
매우 크다	2	3	0	0	0	5
계	43	137	148	110	1	439

〈표 2-1〉 손크기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 간의 교차분석 결과

인식도 \ 만족도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계
매우 작다	1	0	0	1	1	3
작다	8	28	35	56	3	130
보통이다	1	13	76	102	3	195
크다	4	21	34	42	2	103
매우 크다	1	2	2	2	1	8
계	15	64	147	203	10	439

## 2. 전신, 상체, 하체에 관한 전체 인식도 및 만족도

〈표 3〉은 전신, 상체, 하체에 관한 전체적인 인식도와 만족도를 알아본 것으로 항목 간의 상관분석을 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전신에 관한 인식도는 하체에 관해 인식하는 정도보다 상체에 인식하는 정도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전신에 관한 만족도는 하체에 관한 만족도가 상체에 관한 만족도와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전체적인 인식도와 만족도에 관한 상관분석 결과

구분		신체 인식도			신체 만족도		
		전신	상체	하체	전신	상체	하체
신체 인식도	전신	1.000					
	상체	0.778	1.000				
	하체	0.678	0.434	1.000			
신체 만족도	전신	-0.331	-0.278	-0.235	1.000		
	상체	-0.174	-0.307	-0.258	0.546	1.000	
	하체	-0.283	-0.126	-0.418	0.582	0.266	1.000

설문 대상자인 20대 여대생들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를 집단으로 분류하여 빈도를 파악하였다. 자신의 전신에 대하여 마른 체형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전체의 24.4%, 보통 체형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49.2%, 뚱뚱한 체형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은 27.4%로 나타났다. 상체에 대하여 말랐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28.2%,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은 44.2%,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27.6%로 나타났으며 하체에 대하여 말랐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16.4%,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은 39.2%,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43.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기 신체에 대해 평가할 때 하반신이 뚱뚱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더욱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 만족도에 대한 빈도를 살펴보면, 전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집단은 6.8%, 그저그렇다고 느끼는 집단은 41.7%, 불만족 집단은 51.5%로 나타났다. 상체에 대해 만족하는 집단은 전체의 11.6%, 그저그렇다 집단은 37.8%, 불만족 집단은 50.6%로 나타났으며 하체에 대해 만족하는 집단은 13.0%, 그저그렇다 집단은 26.7%, 불만족을 나타낸 집단은 60.4%를 나타내어 특히 하체에 대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체 중 하체는 근육 및 지방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 골격에 의해서 체형이 유형화 되기보다는 근육과 지방이 분포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이므로 상체보다 인식하는 정도나 만족하는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 3. 패션 소재에 관한 집단별 선호도

〈표 4〉는 캐주얼 웨어, 언더웨어, 포멀 웨어, 스포츠 웨어, 액세서리용 패션소재에 관한 면, 마, 실크, 양모, 레이온, 아세테이트,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T/C, T/W 혼방, 폴리우레탄의 소재의 선호도를 전신에 대한 집단별 유의차 검정 결과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자신의 전신에 대해 마른 체형으로 인식, 보통체형으로 인식, 뚱뚱한 체형으로 인식

하는 집단별로 캐주얼 웨어 소재 중에서 폴리에스테르, 아세테이트, 포멀 웨어 소재 중에서는 마,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T/W, 폴리우레탄, 스포츠 웨어 소재 중에서는 면, 나일론, T/C, T/W에서 집단별 선호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캐주얼 웨어의 경우 폴리에스테르와 아세테이트 소재 모두 마른 체형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포멀 웨어는 마와 아크릴, T/W 소재는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마른 체형에 비해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우레탄 소재는 마른 체형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의 곡선이 강조되는 실루엣을 표현하는 소재일수록 마른 체형이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 섬유는 마른 체형이라고 인식하는데 비해서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웨어 중에서 면 소재는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마른 체형으로 인식하는 집단 모두 선호하는 소재로 나타났다. 나일론, T/C, T/W 소재는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더웨어와 액세서리류 소재는 집단별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인식도 집단별 패션소재 선호도에 관한 ANOVA test 결과

패션상품의 종류	소재의 종류	집단별 인식도	평균	Duncan multiple test
캐주얼 웨어	폴리에스테르	마른 체형	3.16	a
		보통 체형	3.06	ab
		뚱뚱한 체형	2.95	b
	아세테이트	마른 체형	3.50	b
		보통 체형	2.44	ab
		뚱뚱한 체형	2.29	a
포멀 웨어	마	마른 체형	2.74	b
		보통 체형	2.95	ab
		뚱뚱한 체형	2.99	a
	폴리에스테르	마른 체형	3.26	a
		보통 체형	2.93	b
		뚱뚱한 체형	3.03	b
	아크릴	마른 체형	2.84	a
		보통 체형	2.72	ab
		뚱뚱한 체형	2.66	b
	T/W	마른 체형	3.16	b
		보통 체형	3.33	a
		뚱뚱한 체형	3.32	a
	폴리우레탄	마른 체형	3.78	a
		보통 체형	2.77	b
		뚱뚱한 체형	2.49	c
스포츠 웨어	면	마른 체형	4.25	a
		보통 체형	3.99	b
		뚱뚱한 체형	4.03	ab
	나일론	마른 체형	2.25	b
		보통 체형	2.52	a
		뚱뚱한 체형	2.40	ab
	T/C	마른 체형	3.10	b
		보통 체형	3.31	a
		뚱뚱한 체형	3.31	a
	T/W	마른 체형	2.63	b
		보통 체형	2.89	a
		뚱뚱한 체형	2.73	ab



〈표 5〉는 전신에 대한 신체 만족도에 관한 집단별로 패션소재의 선호도 유의차를 검정한 결과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캐주얼 소재 중에서 마, 실크, 아세테이트, 언더웨어 소재 중에서 면, 포멀 웨어 소재 중에서 폴리우레탄, 스포츠 웨어 소재 중에서 나일론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캐주얼 웨어에 대해서는 신체에 불만족하는 집단은 마와 실크 소재에 대해서 만족하는 집단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아세테이트 소재는 만족 집단이 더 선호하였다. 언더웨어 소재로 면은 불만족 집단, 만족 집단 선호하는 소재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체 불만족 집단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멀 웨어 소재로 폴리우레탄 소재는 신체에 만족하는 집단이 더욱 선호하였다. 스포츠 웨어 소재로 나일론 역시 신체 만족도가 큰 집단이 더욱 선호하였다.

엑세서리류는 패션소재의 선호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5〉 만족도 집단별 패션소재 선호도에 관한 ANOVA test 결과

패션상품의 종류	소재의 종류	집단별 만족도	평균	Duncan multiple test.
캐주얼 웨어	마	불만족 집단	3.32	a
		만족 집단	3.27	ab
		그저그렇다 집단	3.09	b
	실크	불만족 집단	3.50	a
		만족 집단	3.19	b
		그저그렇다 집단	3.00	b
	아세테이트	불만족 집단	2.70	b
		만족 집단	2.93	a
		그저그렇다 집단	2.79	ab
언더웨어	면	불만족 집단	4.37	a
		만족 집단	4.15	ab
		그저그렇다 집단	4.00	b
포멀 웨어	폴리우레탄	불만족 집단	2.40	b
		만족 집단	2.83	a
		그저그렇다 집단	2.65	ab
스포츠 웨어	나일론	불만족 집단	2.23	b
		만족 집단	2.64	a
		그저그렇다 집단	2.50	a

#### IV. 결론

본 논문은 20대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크기에 대한 인식도 및 신체 만족도를 설문지 조사하여 이들 변인간의 상관성 및 여원, 뚱뚱한 인식과 불만족, 만족에 따른 집단별 패션 소재의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전신, 상체, 하체 각각에 대한 자신의 신체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뚱뚱한 체형으로 자가 인식하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신체 만족 정도에 있어서도 만족 집단, 불만족 집단, 보통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439부의 설문지가 통계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통계는 상관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 및 던컨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여대생의 신체 인식도 및 만족도를 상관 분석한 결과, 정적 상관성이 나타난 항목은 길이 항목 중에서 큰 키, 긴 다리, 긴 팔일수록 만족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등 길이와 엉덩이 길이는 부적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가슴둘레를 제외한 둘레항목 즉 대퇴, 허리, 하퇴, 발목, 상완이 굵을수록 불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머리크기가 클수록 몸무게가 많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였다.
2. 만족도와 인식도의 상관성이 매우 낮게 나타난 항목은 가슴둘레와 손크기로써 이들 변인을 교차분석한 결과 가슴둘레, 손크기는 크거나 작은 경우 모두 불만족하였다.
3. 신체 인식도와 만족도를 전신, 상체, 하체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전신 인식도는 하체보다 상체의 인식도와 상관성이 높은 반면에, 전신 만족도는 상체보다 하체의 만족도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4. 전신에 대한 인식은 마른 체형 23.4%, 보통 체형 49.2%, 뚱뚱한 체형 27.2%로 나타났으나, 전신에 대해 만족하는 집단은 6.8%, 그저그렇다 집단은 41.7%, 불만족하는 집단은 51.4%로 나타나 만족집단이 매우 적었다.
5. 전신에 대한 인식도를 집단별 분류하여 패션소재에 대하여 선호도의 유의차를 분석한 결과 캐주얼 웨어 소재 중에서 폴리에스테르, 아세테이트, 포멀 웨어 소재 중에서 마,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T/W, 폴리우레탄, 스포츠 웨어 소재 중에서는 면, 나일론, T/C, T/W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언더 웨어와 악세사리류 소재는 집단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6. 전신에 대한 만족도를 집단별 분류하여 패션소재에 대하여 선호도의 유의차를 분석한 결과 평상복 소재 중에서 마, 견, 아세테이트, 언더웨어 소재 중에서 면, 정장류 소재 중에서 폴리우레탄, 스포츠 웨어 소재 중에서도 나일론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악세사리류는 패션소재의 선호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참고문헌

1. Secord, P. F. and S. M. Jourard(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 Body 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5), 343-347.
2. Richard, E. A. and R. E. Hawthorne(1971). "Values, Body 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3), 190-194.
3. 이영륜(1981)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고애란(1983) 성인 남자의 의복행동과 강화통제 및 신체 만족도와와의 상관연구 - 의복의 수용, 신분상징성, 만족도를 중심으로 -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5. 김정숙(1984) 여대생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디자인의 선호간의 상관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정재은(1988)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448-458.
7. Douty, H. I., Brannon, E. L.(1984) "Figure Attractiveness : Male and Female Preference for Female Figur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2), 122-137, 1984.
8. Lennon, S. J.(1988)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d Research Journal*, 16(3), 196-203.
9. Labat, K. L., Delong M. L.(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8(2), 43-48.
10. Kaiser, S. B.(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2nd ed.) New York : Macmillan.
11. 김양진, 강혜원(1992)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 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67-681.
12. 류기주(1992),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형태, *한국의류학회지*, 16(4), 357-369.
13. 박영숙, 이연화, 김연순, 이경애, 김순경(1994), 대학생의 체형만족 태도 및 비만 실태 조사, *순천향대학교 논문집*, 17(1), 159-165.
14. 정재은, 남윤자(1999), 20대 여성의 신체 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1992년도와 1997년도의 비교, 23(1), 159-169.

## Abstract

# A Study on the Preference of Fashion Materials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nsciousness and Satisfaction of Body Cathexis

Kim, Jeung-Ja\* · Cho, Ji-Hyun\*\*

\* Dept. of Fashion Design, Yeung Jin Junior College, Professor

\*\* Dept. of Fashion Design, Yeung Jin Junior College, Lectur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preference of fashion materials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nsciousness and satisfaction of body.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the randomly selected 439 woman students in the twenties. The consciousness variable had three levels which were lean, medium, and obese shape for each whole, upper and lower body with self-consciousness. Also, satisfaction variable had three levels which were satisfying, average, and unsatisfying group. We analyzed the data using analysis of correlation, crosstabulation analysis, and analysis of variance including Duncan multiple 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 1) There was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height, leg, and arm length, and each variable, and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back, hip, thigh, waist, lower leg, ankle, and upper arm, and each variable. Also, we could observe the pattern that the larger the head or the more the weight was, the lower the satisfaction of body was.
- 2) There were no strong correlation between breast and hand size and each variable. From the crossed classification, we could observe the trend that the smaller the breast was, the lower the satisfaction of body was.
- 3) There were the strong correlation between whole and upper body in consciousness degree and between whole and lower body in satisfaction.
- 4) The consciousness of the whole body was shown lean shape

23.4%, medium shape 49.2%, and obese shape 27.2%. For the satisfaction degree of the whole body, satisfaction was shown 6.8%, average 41.7% and unsatisfaction 51.4%, so the satisfaction group is very small.

5) From the analysis for the consciousness degree of the whole body, the preferred fashion materials were polyester and acetate in casual wear, linen, polyester, acryl, T/W, and polyurethan in formal wear, and cotton, nylon, T/C, and T/W in sports wear.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asual wear, formal wear, and sports wear, but, not in underwear and accessories among the consciousness groups.

6) From the analysis for the satisfaction degree of the whole body, the preferred fashion materials were linen, silk, and acetate in casual wear, cotton in underwear, polyurethane in formal wear, and nylon in sports wear.

There was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casual wear, underwear, formal wear and sports wear, but, not in accessories among the satisfaction groups.

Key words : the degree of consciousness of body cathexis(신체 인식도),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body cathexis(신체 만족도), lean, medium, obese shape(마른/보통/뚱뚱한 형태) fashion materials(패션소재), cotton, linen, silk, wool, rayon, acetate, polyester, nylon, acryl, polyurethane, T/W, T/C, casual wear(캐주얼 웨어), formal wear (포멀 웨어), underwear(언더웨어), sports wear(스포츠 웨어), accessories(액세서리류)